

이인영 장관, 'GP' DMZ 관광 숙소활용 제안

✎ 김여진 | ☎ 승인 2020.12.04 | □ 8면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기초강연
“폭파 대신 ‘평화의 길’ 연계 고민”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온라인으로 개막한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에서 기초강연을 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김여진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를 '평화의 길'과 연계한 숙소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3일 온라인으로 개막한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진행된)GP 철수 과정에서 1개만 남겨두고 모두 폭파한 점은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향후 GP를 추가 철수하게 되면 폭파시키기 보다는 'DMZ 평화의 길'을 만들고 그 길과 연계된 롯지(lodge)와 같은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GP와 DMZ 둘레길을 연결해 철원,고성,파주에 조성한 '평화의 길'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문제가 해소되는 대로 재개방하고 신규 노선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5일까지 사흘간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9개 UN기구를 비롯한 17개국의 전문가 60여명이 온라인으로 모여 DMZ 평화·생태 분야의 가능성을 함께 찾는다.우병렬 도경제부지사,이현종 철원군수,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강금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이광재 국회의원이 이날 환영사와 축사를 각각 전했다. 김여진



김여진 beatle@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